

아동의 또래 인기도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

Understanding,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Reactions about
Different Types of Lies : Links to Children's Popularity

박영아(Young-Ah Park)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er popularity is linked to children's understanding,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reactions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lies. Participants were second ($n=53$) and fourth ($n=54$) grade children. Results showed that (1) popular children afforded better understanding of white lies than unpopular children; most children understood the definition of an antisocial lie, but not a trick lie. (2) Popular children rated lies more positively than unpopular children. Second graders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morality of white and trick lies; fourth graders rated white lies as the least serious type of lie. (3) Second graders anticipated greater positive emotional reaction for antisocial lies and greater negative emotional reaction for white lies and trick lies, respectively, than fourth graders.

Key Words : 또래 인기도(peer popularity),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s),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s), 유희적 거짓말(trick lies).

I. 서 론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 아동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대인관계가 확대된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

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그릇된지를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개념과 행동을 발달시켜야 한다.

아동기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또래관계가 특히 중요해진다. 또래와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아동은 양

¹⁾ 대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Young-Ah Par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jin University, Kyunggido 487-711, Korea
E-mail : parkya@daejin.ac.kr

보하기, 돕기, 공감하기, 협상하기, 협력하기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역할을 습득한다.

또래 인기도는 아동이 또래 집단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이다.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획득하는 인기의 정도는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이 있다. 또래 아동으로부터 선호되는 인기아는 친사회적인 행동 특성을 발달시키며 대인간 문제 상황에서 협동적이고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전략을 선택하는데 반해, 비인기아는 부적절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양진희 · 최기영, 1996; Asher & Renshaw, 1983).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은 공격성, 위축, 친사회적 능력의 결핍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며 (Badenes, Estevan, & Bacete, 2000), 다른 사람의 의도, 정서, 단서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Dodge, 1980).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마음 이해 능력의 수준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다(김혜리 · 이숙희, 2005; 신유림, 2005; Capage & Watson, 2001; Lalonde & Chandler, 1995). 또, 인기 있는 아동은 또래와 대화할 때 맥락에 적합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은 또래와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하며 견해에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특성을 보인다(Hazen & Black, 1989).

도덕추론과 같은 사회인지 능력도 인기도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 즉, 다친 아동을 돕는 것과 생일잔치에 늦지 않게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도덕추론 능력이 발달된 아동은 협동하거나 공유하기와 같은 인기도와 관련된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Eisenberg, 1986). 쾌락 중심의 도덕추론을 하는 아동은 타인의 필요나 인정을 고려하는 상위 수준의 도덕추론을 하는 아동에 비해 자기중심적인 특성과 공격성을 표출하기 때문에 비인기아로 분류되는 경향이 많다(송종란 · 조증열, 2000; Bear & Rys, 1994).

또래 인기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성숙된 수준의 대인문제해결사고,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또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증진시킴으로써 또래에게 쉽게 수용되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언어적 행동인 거짓말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와 또래 인기도간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거짓말은 자신의 행동이 처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인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절과 배려라는 긍정적인 동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거짓말, 가령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이나 유희적 거짓말(trick lie)은 친사회적 능력이 반영된 의사소통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도덕성 발달을 다른 영역에서 Piaget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의도에 근거하여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만이 거짓말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거짓말은 의도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좋은 의도인가 나쁜 의도인가와는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로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Bok, 1978). 예를 들어,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의 연구에서 11세 아동의 95%는 과장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였고, 성인의 30%는 말실수를 거짓말로 구분하였다. 이 결과는 의도만이 거짓말의 잣대가 될 수는 없으며, 상황이나 개인적 믿음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도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가진 실용적 기능을 분석하는 화행론(Speech Act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말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Lee, 2000). 이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는 대신 특정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말이나 참말을 하는 단순화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다. 2세가량의 어린 아동도 참과 거짓을 이해하기 시작한다(Perner, 1997). 또, 4세경이 되면 벌을 받지 않는 거짓말보다 벌을 받는 거짓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거짓말과 참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Bussey, 1992).

거짓말은 유형에 따라 크게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Bussey, 1992, 1999). 반사회적 거짓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짓말로 정의될 수 있다. 선의의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없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또, 유희적 거짓말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와 재미가 목적인 거짓말로서 도덕적 책임

과는 가장 관련이 적다(Bussey, 1999). 거짓말의 유형별로 아동의 도덕적 판단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Bussey(1999)와 Peterson 등(1983)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반사회적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순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Bussey(1999)는 4, 8,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준이 어떻게 내면화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한 아동이 자부심이나 죄책감 중 어떤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선의의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참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과 유희적 행동에 있어서는 연령차가 있었다. 즉, 4세 아동들은 거짓말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으나, 참말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8세와 11세 아동들은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고, 참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Bussey(1999)는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에 대한 처벌과 비난을 학습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뒤에 참말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국내의 관련 연구로는 속이려는 의도에 초점을 두어 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김신옥, 1987; 김희주, 1988)과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들(선미정, 2005; 손은경, 2002; 이근욱, 2001)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들은 5세 이후가 되면 의도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또,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평

가는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선미정(2005)의 연구에서 5-9세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지만, 이근옥(2001)의 연구에서 5, 8, 11세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5세와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손은경(2002)의 연구에서는 유희적 거짓말과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차이가 없었다.

아동이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감정은 선미정(2005)의 연구에서 5-9세 아동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응답한 아동의 수가 매우 적었고 미안하고 겁이 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다음 기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선미정(2005)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유희적 거짓말을 그 의사소통 맥락에서 유머를 발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행동으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그것의 사회적 기능과 실용적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거짓말에 대한 개념, 도덕적 판단, 긍정적 정서 반응, 부정적 정서 반응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데, 이를 탐색한 연구들(손은경, 2002; Bussey, 1992, 1999)에서는 성차가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말 유형에 따른 아동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인기도나 사회정서적 능력과 관련지어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의 특성을 다룬

Badenes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선의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능력은 공격성이나 위축된 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가진 긍정적인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부정적이고 악의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Badenes 등(2000)의 연구는 또래 인기도와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평가간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거짓말의 유형 중 선의의 거짓말만을 다루었고, 이 또한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을 이해하는지 여부만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인기도 및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아동의 인기도에 따라 거짓말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 경험은 도덕적 평가 능력과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되어 있는 인기 있는 아동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이 용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인기도와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의 이해에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인기도와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인기도와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긍정적 정서 반응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학년 두 학급과 4학년 두 학급의 아동 총 107명이었다. 이 중 2학년(93-105개월, 평균=98.6개월)은 53명(남아 : 25명, 여아 : 28명), 4학년(118-129개월, 평균=123.6개월)은 54명(남아 : 29명, 여아 : 25명)이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시기가 취학 전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또래와 같이 생활해야 하므로 다양한 도덕적 갈등 상황을 경험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연령을 8세와 10세로 선정한 것은 8-10세에 선의의 거짓말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참말 대신 거짓말이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민감성이 발달된다고 한 Walper와 Valtin(1992)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2. 연구도구

1) 또래 인기도

또래지명에 의한 사회측정법으로 알아보았다. 생일잔치를 한다면 같은 반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좋아하는 순서대로 3명의 이름(정적 점수)과 누구를 초대하고 싶지 않은지 싫어하는 순서대로 3명의 이름(부적 점수)을 쓰도록 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 거짓말 과제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상황이 묘사된 그림 카드를 각 유형별로 2개씩 총 6개의 그림 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카드

는 10×15cm 크기의 흰 종이에 검은 색으로 테두리만을 그려 제시하였다. 그림 카드는 남아가 주인공인 것과 여아가 주인공인 것으로 두 세트를 구성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성과 동일한 성의 아동이 주인공인 그림을 사용하였다.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은 Happé(1994)와 Bussey(1999)가 사용한 이야기이며, 유희적 거짓말은 Happé(1994)가 고안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예비 실험을 거쳐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일부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의 대상이 또래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선미정, 2005; 손은경, 2002; 이근옥, 2001; Bussey, 1999)에서 이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거짓말의 대상은 고려하지 않고 아동에게 친숙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선정하였다.

각 거짓말 유형별로 그림 카드에 그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반사회적 거짓말

1. 아동이 집 안에서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다. 어머니께서 누가 깨뜨린 것이냐고 물어보셨다. 아동은 개를 가리키며 “제가 깨뜨리지 않았어요. 저 개가 깨뜨린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2. 아동이 언니(형)에게 물어보지 않고 크레파스를 가져가서 쓰고는 제자리에 갖다놓지 않았다. 언니(형)가 돌아와서 크레파스를 못 보았냐고 물어보자, 아동은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 선의의 거짓말

1. 빵을 좋아하는 아동을 위하여 할머니께서 빵을 만들어주셨다. 빵을 먹어본 아동은 빵이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자 아동은 “예,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했다.

2. 아동은 생일 선물로 인형(로봇)을 받고 싶었으나 아버지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다. 아버지께서 선물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시자 아동은 “예,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이에요”라고 대답했다.

• 유희적 거짓말

1. 아동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친구 집에 갔더니 좋아하는 음식이 아주 많이 있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아동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친구에게 “이것 좀 봐. 내 배가 산이 되었어”라고 말했다.

2. 아동이 친구 집에 갔는데, 아주 덩치가 큰 개가 있었다. 그 개를 본 아동은 “너희 집에서는 꿈을 기르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1) 거짓말의 이해

그림 카드를 제시한 다음 그림 속의 아동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질문지에 기록하였다. 이 때 아동이 거짓이라고 답하면,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탐문하여 이에 대한 반응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2)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그림 속의 아동이 한 말에 대하여 얼마나 잘했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인지적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Lee, Cameron, Xu, Fu와 Board (1997)가 사용한 도구를 변형하여 본 연구에서는 얼굴 그림을 제시하였다. 즉,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짙은 얼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약간 짙은 얼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지(무표정한 얼굴),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약간 밝은 얼굴),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아주 밝게 웃는 얼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3)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그림 속의 아동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걱정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 2cm, 4cm, 6cm 길이로 4개가 그려져 있어서 그림 속의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추측하도록 되어 있었다.

(4)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

그림 속의 아동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 2cm, 4cm, 6cm 길이로 4개가 그려져 있어서 그림 속의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추측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연구절차

1) 실험 실시

(1)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학년에서 10명씩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거짓말 과제의 연구도구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이야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아동들이 이야기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지, 어떤 이야기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거짓말의 유형별로 두 가지씩 선정한 후, 내용의 일부를 개작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20분이었다.

(2) 본 실험

본 실험은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의 실시에 앞서 아동에게 학급이나 취미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다음 또래 인기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네가 생일잔치를 한다면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니? 초대하고 싶은 아이들의 이름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3명 적어보자”라고 말하고,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 생일잔치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누구니? 초대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싫어하는 순서대로 3명 적어보자”라고 말하고,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그 후 거짓말 과제를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두 차례 반복 실시하였다. 각 유형에서 먼저 아동에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속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런 다음 거짓말의 이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아이가 한 말은 참말이니 거짓말이니?”라고 질문하였다. 이 때, 아동이 거짓말이라고 답하면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라고 탐문하고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그 후 도덕적 판단을 묻는 얼굴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너는 이 아이가 한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1번 그림(짙그리고 우는 얼굴)에,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2번 그림(약간 짙그린 얼굴)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3번 그림(무표정한 얼굴)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면 4번 그림(약간 밝은 얼굴)에,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5번 그림(아주 밝게 웃는 얼굴)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설명해준 다음 해당 그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알아보

기 위해 막대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림 속의 아이는 이 말을 하고 난 후 걱정되거나 속상한 마음일 것 같니? 아주 많이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긴 막대(6cm)에,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긴 막대(4cm)에,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막대(2cm)에,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여기(0cm)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말해주고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막대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림 속의 아이는 이 말을 하고 난 후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일 것 같니? 아주 많이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긴 막대(6cm)에,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긴 막대(4cm)에,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막대(2cm)에,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여기(0cm)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말해주고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반응평가

(1) 또래 인기도

정적 점수인 경우 1순위에 지명되면 3점, 2순위이면 2점, 3순위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적 점수인 경우 1순위에 지명되면 -3점, 2순위일 때 -2점, 3순위일 때 -1점을 부여하였다.

김혜리와 이숙희(2005)가 사용한 방법과 같이 각 아동의 정적 점수와 부적 점수를 합산한 후 이 점수를 학급인원수-1(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으므로 1점을 감함)로 나눈 평균으로 인기도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이를 학급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 산출된 표준점수가 +인 경우에는 인기도 ‘상’ 집단으로, -인 경우에는 인기도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거짓말의 이해

그림 속 아동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Badenes 등(2000)의 측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다.

- 사실이라고 답하였을 때 : 0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으나, 거짓말을 한 이유를 모른다고 답하였을 때 : 1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적절하지 못하였을 때 : 2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고, 거짓말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유를 설명했을 때 : 3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점과 3점으로 평정한 예를 들면, 반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면 내가 치워야 하니까 장난친 거죠”에는 2점,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한테 야단맞을 것 같아서요”에는 3점을 부여했다.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다시는 음식을 안 해주실까 봐요”에는 2점,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까 봐요”에는 3점을 주었다. 또, 유희적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많이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요”는 2점, “거짓말이에요. 친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 말이에요”는 3점으로 평정하였다.

아동의 응답에 대한 평정은 본 연구자와 한 명의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생이 실시하였으며, 두 평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는 .95로 나타났다.

(3)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짙그리고 우는 얼굴에 표시했을 때는 1점, 약간 짙그린 얼굴에는 2점, 무표정한 얼굴에는 3점, 약간 밝은 얼굴에 표시했을 때는 4점, 아주 밝게 웃는 얼굴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며, 점

수가 낮을수록 거짓말을 나쁘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4)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아동이 표시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 막대에는 1점, 2cm 막대에는 2점, 4cm 막대에는 3점, 6cm 막대에는 4점을 주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

아동이 표시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 막대는 1점, 2cm 막대는 2점, 4cm 막대는 3점, 그리고 6cm 막대는 4점으로 평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기도, 연령,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거짓말의 유형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거짓말의 이해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거짓말 유형	성별	2학년(<i>n</i> =53)		4학년(<i>n</i> =54)		전체(<i>N</i> =107)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반사회적 거짓말	남아	5.80(.42)	5.93(.26)	6.00(.00)	6.00(.00)	5.91(.29)	5.97(.18)
	여아	5.78(.73)	6.00(.00)	6.00(.00)	5.88(.35)	5.89(.53)	5.94(.24)
선의를 거짓말	남아	5.20(1.03)	5.00(1.07)	5.92(.28)	5.50(.82)	5.61(.78)	5.26(.97)
	여아	5.67(.59)	4.20(1.62)	5.88(.33)	5.88(.35)	5.77(.49)	4.94(1.47)
유희적 거짓말	남아	3.80(.42)	3.73(.96)	5.00(.91)	5.38(.89)	4.48(.95)	4.58(1.23)
	여아	3.94(.94)	4.00(.94)	4.94(.93)	4.88(1.25)	4.43(1.01)	4.39(1.15)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의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연령($F(1, 99)=47.68, p<.001$), 거짓말 유형($F(2, 198)=119.84, p<.001$)의 주효과, 거짓말 유형과 인기도($F(2, 198)=6.31, p<.01$), 거짓말 유형과 연령($F(2, 198)=16.43, p<.001$), 그리고 거짓말 유형, 인기도, 연령과 성별($F(2, 198)=4.96, p<.01$)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주 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연령차는 4학년 아동들($M=5.60$)이 2학년 아동들($M=4.92$)보다 거짓말의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를 거짓말($p<.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001$), 선의를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0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반사회적 거짓말($M=5.92$), 선의를 거짓말($M=5.41$), 유희적 거짓말($M=4.46$)의 순으로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다.

거짓말 유형과 인기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인기도 집단별로 거짓말 유형별 반응의 차이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기도가 높은 집단($F(2, 114)=98.81, p<.001$)

과 인기도가 낮은 집단($F(2, 96)=33.72, p<.001$)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를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이해 수준이 높았다. 각 거짓말 유형별로 인기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의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의를 거짓말($F(1, 105)=10.08, p<.01$)에서는 인기도가 높은 집단이 인기도가 낮은 집단보다 거짓말의 이해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거짓말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별 반응의 차이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알아보았다. 2학년($F(2, 104)=82.84, p<.001$)과 4학년($F(2, 106)=33.98, p<.001$)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를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거짓말 유형별로 연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에서는 두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의를 거짓말($F(1, 105)=14.65, p<.001$)과 유희적 거짓말($F(1, 105)=48.79, p<.001$)에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또 한편, 거짓말 유형, 인기도, 연령과 성별간

<표 2>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인기도	1.27	1	1.27	1.75
	연령	34.65	1	34.65	47.68***
	성별	.03	1	.03	.04
	인기도×연령	.60	1	.60	.82
	인기도×성별	.75	1	.75	1.03
	연령×성별	.12	1	.12	.16
	인기도×연령×성별	.42	1	.42	.58
	오차	71.94	99	.73	
피험자내	거짓말 유형	109.40	2	54.70	119.84***
	거짓말 유형×인기도	5.76	2	2.89	6.31**
	거짓말 유형×연령	15.00	2	7.50	16.43***
	거짓말 유형×성별	.02	2	.01	.02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	2.29	2	1.14	2.51
	거짓말 유형×인기도×성별	.53	2	.27	.58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2.08	2	1.04	2.28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성별	4.53	2	2.26	4.96**
	오차	90.39	198		

** $p < .01$ *** $p < .001$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각 거짓말 유형에서 인기도에 따른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학년 여아들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인기도가 높은 여아들은 인기도가 낮은 여아들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F(1, 26)=12.15, p < .01$).

2.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인기도($F(1, 99)=6.47, p < .05$),

연령($F(1, 99)=15.79, p < .001$), 거짓말 유형($F(2, 198)=87.34, p < .001$)의 주 효과, 그리고 거짓말 유형과 연령($F(2, 198)=11.66, p < .001$)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주 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인기도에 따라서는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M=4.51$)이 인기도가 낮은 아동들($M=4.01$)보다 긍정적인 도덕 판단을 나타냈다($p < .05$). 연령간 차이는 4학년 아동들($M=4.65$)이 2학년 아동들($M=3.87$)보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더 긍정적이었다($p < .001$). 또, 거짓말 유형에 따라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선의의 거짓말($M=5.21$), 유희적 거짓말($M=4.77$), 반사회적 거짓말($M=2.79$)의 순으로 긍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거짓말 유형	성별	2학년(<i>n</i> =53)		4학년(<i>n</i> =54)		전체(<i>N</i> =107)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반사회적 거짓말	남아	2.60(.52)	2.87(.83)	2.69(1.03)	2.44(.63)	2.65(.83)	2.65(.76)
	여아	3.44(1.20)	2.80(1.14)	2.59(.71)	2.88(.99)	3.03(1.07)	2.83(1.04)
선의의 거짓말	남아	4.20(1.75)	4.13(2.07)	6.54(2.18)	5.25(2.20)	5.52(2.29)	4.71(2.18)
	여아	4.67(1.41)	4.80(2.20)	6.35(1.69)	5.75(1.98)	5.49(1.76)	5.22(2.10)
유회적 거짓말	남아	4.40(1.51)	3.67(1.35)	6.00(1.16)	4.69(1.86)	5.30(1.32)	4.19(1.68)
	여아	5.00(1.33)	3.80(1.55)	5.59(1.28)	5.00(1.60)	5.29(1.32)	4.33(1.65)

거짓말 유형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별 반응의 차이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알아보았다. 2학년($F(2, 104)=17.58, p<.001$)과 4학년($F(2, 106)=94.41, p<.001$) 모두 거짓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2학년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0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학년은 반사회적 거짓말($M=2.93$)을 선의의 거짓말($M=4.45$)이나 유회적 거짓말($M=4.22$)보다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4학년에서는 반사

<표 4>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인기도	18.62	1	18.62	6.47*
	연령	45.46	1	45.46	15.79***
	성별	5.27	1	5.27	1.83
	인기도×연령	1.19	1	1.19	.41
	인기도×성별	.31	1	.31	.11
	연령×성별	2.27	1	2.27	.79
	인기도×연령×성별	5.06	1	5.06	1.76
	오차	285.09	99	2.88	
피험자내	거짓말 유형	330.15	2	165.08	87.34***
	거짓말 유형×인기도	9.50	2	4.75	2.51
	거짓말 유형×연령	44.08	2	22.04	11.66***
	거짓말 유형×성별	.52	2	.26	.14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	5.02	2	2.51	1.33
	거짓말 유형×인기도×성별	1.22	2	.61	.32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15	2	.08	.04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성별	.78	2	.39	.21
	오차	374.22	198	1.89	

* $p<.05$ *** $p<.001$

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선의의 거짓말($M=5.97$), 유희적 거짓말($M=5.32$), 반사회적 거짓말($M=2.65$)의 순으로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각 거짓말 유형별로 연령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사회적 거짓말($F(1, 105)=4.78, p < .05$)에 대해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더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였으나, 선의의 거짓말($F(1, 105)=16.91, p < .001$)과 유희적 거짓말($F(1, 105)=12.87, p < .01$)에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

1) 부정적 정서 반응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부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부정적 정서 반응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연령($F(1, 99)=8.32, p < .01$)과 거짓말 유형($F(2, 198)=67.47, p < .001$)의 주 효과, 그리고 거짓말 유형과 연령($F(2, 198)=7.40, p < .01$)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주 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연령간의 차이는 2학년 아동들($M=5.63$)이 4학년 아동들($M=5.00$)보다 거짓말에 대해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다($p < .01$).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반사회적 거짓말($M=6.32$), 선의의 거짓말($M=5.33$), 유희적 거짓말($M=4.30$)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거짓말 유형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각 연령별로 거짓말 유형에서의 반응 차이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학년($F(2, 104)=17.70, p < .001$)과 4학년($F(2, 106)=69.25, p < .001$)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각 거짓말

<표 5>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거짓말 유형	성별	2학년($n=53$)		4학년($n=54$)		전체($N=107$)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반사회적 거짓말	남아	5.90(1.29)	6.60(1.40)	6.92(.95)	6.44(1.79)	6.48(1.20)	6.52(1.59)
	여아	6.11(1.13)	6.40(1.78)	6.59(1.12)	5.63(1.30)	6.34(1.14)	6.06(1.59)
선의의 거짓말	남아	6.00(1.25)	6.00(1.36)	5.00(1.23)	5.19(1.38)	5.43(1.31)	5.58(1.41)
	여아	5.17(1.51)	6.00(1.33)	4.41(1.28)	4.88(1.25)	4.80(1.43)	5.50(1.38)
유희적 거짓말	남아	4.40(1.51)	4.27(2.12)	3.46(1.05)	4.31(2.06)	3.87(1.33)	4.29(2.05)
	여아	4.72(1.64)	6.00(2.11)	3.59(1.18)	3.63(1.60)	4.17(1.52)	4.94(2.21)

<표 6>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반응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인기도	4.82	1	4.82	1.37
	연령	29.29	1	29.29	8.32**
	성별	.98	1	.98	.28
	인기도×연령	4.28	1	4.28	1.22
	인기도×성별	.35	1	.35	.10
	연령×성별	7.62	1	7.62	2.17
	인기도×연령×성별	4.19	1	4.19	1.19
	오차	348.41	99	3.52	
피험자내	거짓말 유형	203.54	2	101.77	67.47***
	거짓말 유형×인기도	5.31	2	2.66	1.76
	거짓말 유형×연령	22.34	2	11.17	7.40**
	거짓말 유형×성별	9.14	2	4.57	3.03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	5.09	2	2.54	1.69
	거짓말 유형×인기도×성별	3.34	2	1.67	1.11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5.07	2	2.53	1.68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성별	3.97	2	1.98	1.32
	오차	298.65	198	1.51	

** $p < .01$ *** $p < .001$

유형에서 연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서는 두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F(1, 105)=10.97, p < .01$)과 유희적 거짓말($F(1, 105)=8.91, p < .01$)에서는 2학년이 4학년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보였다.

2) 긍정적 정서 반응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긍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긍정적 정서 반응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거짓말 유형($F(2, 198)=29.32, p < .001$)의 주 효과와 거짓말 유형과 연령($F(2,$

$198)=3.19, p < .05$)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주 효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거짓말 유형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 < .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유희적 거짓말($M=3.90$), 선의의 거짓말($M=3.47$), 반사회적 거짓말($M=2.81$)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거짓말 유형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연령에서 거짓말 유형별 반응 차이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알아보았다. 2학년($F(2, 104)=6.59, p < .01$)과 4학년($F(2, 106)=33.11, p < .001$) 모두 거짓말 유형별로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2학년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p < .05$)간에 유의한 차이

<표 7>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MSD)

거짓말 유형	성별	2학년(n=53)		4학년(n=54)		전체(N=107)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인기도 상	인기도 하
반사회적 거짓말	남아	3.40(1.35)	3.00(1.69)	2.23(.60)	2.69(.95)	2.74(1.14)	2.84(1.34)
	여아	3.28(.96)	2.70(1.34)	2.65(1.00)	2.50(.76)	2.97(1.01)	2.61(1.09)
선의를 거짓말	남아	3.10(.99)	3.07(1.16)	3.38(.96)	3.56(1.26)	3.26(.96)	3.32(1.22)
	여아	3.78(1.11)	3.80(1.55)	3.82(1.24)	3.25(1.04)	3.80(1.16)	3.56(1.34)
유회적 거짓말	남아	4.30(1.77)	3.53(1.77)	4.31(1.25)	3.94(1.29)	4.30(1.46)	3.74(1.53)
	여아	4.00(1.50)	3.70(1.42)	4.18(1.19)	3.25(1.17)	4.09(1.34)	3.50(1.30)

가 나타났고, 반사회적 거짓말(M=3.09)이나 선의의 거짓말(M=3.44)보다 유회적 거짓말(M=3.88)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4학년에서는 거짓말 유형간의 유의한 차이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p<.001),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001), 선의의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p<.05)간에 발견되었고, 유회적 거짓말(M=3.92), 선의의 거짓말(M=3.51), 반사회적 거짓말(M=2.52)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각 거짓말 유형에서 연

<표 8> 아동의 인기도, 연령,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인기도	6.11	1	6.11	2.30
	연령	1.86	1	1.86	.70
	성별	.08	1	.08	.03
	인기도×연령	.23	1	.23	.09
	인기도×성별	1.27	1	1.27	.48
	연령×성별	.90	1	.90	.34
	인기도×연령×성별	2.63	1	2.63	.99
	오차	263.00	99		
피험자내	거짓말 유형	60.38	2	30.19	29.32***
	거짓말 유형×인기도	3.50	2	1.75	1.70
	거짓말 유형×연령	6.57	2	3.29	3.19*
	거짓말 유형×성별	5.05	2	2.52	2.45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	2.65	2	1.32	1.28
	거짓말 유형×인기도×성별	.44	2	.22	.21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3.04	2	1.52	1.48
	거짓말 유형×인기도×연령×성별	.28	2	.14	.14
	오차	203.88	198	1.03	

*p<.05 ***p<.001

령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에서는 두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반사회적 거짓말 ($F(1, 105)=7.13, p<.01$)에서는 2학년이 4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행동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정서적 측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된다.

본 연구는 도덕성의 주요 주제인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 반응이 아동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에 있어서 아동이 또래로부터 수용되는가 거부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말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동의 또래 인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과 인기도가 낮은 아동들 간에 이해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이 더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다. 이로써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연령에 따라서는 2학년과 4학년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

으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2학년과 4학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이는 4학년이 2학년보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감추고자 하는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 보다 논리적이고 맥락에 적합한 설명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2학년 아동들은 4학년 아동들에 비해 거짓말이 맥락에 따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2학년 여아들에게서 또래 인기도와 거짓말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2학년에서 인기도가 높은 여아들은 인기도가 낮은 여아들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발달되는 과정에 있는 이 시기에 있어, 선의의 거짓말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보다 잘 인식하는 여아들은 또래관계에서 인기도가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아동의 또래 인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인기도가 낮은 아동들보다 거짓말에 대한 전반적인 도덕적 판단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거짓말 유형 중 두 가지 유형, 즉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이 사회적 거짓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이 인기도가 낮은 아동들보다 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더 긍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한 결과가 이러한 차이로 반영되었다고 추측된다. 인기도가 낮은 아동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참말보다 바람직할 수

도 있다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거짓말이 항상 부정적이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이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학년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 유형보다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4학년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령간 차이를 살펴보면,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더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였으나,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2학년이 4학년보다 더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판단에서의 이와 같은 연령차는 2학년 아동들이 4학년 아동들에 비해 이야기의 문맥을 이해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 미숙하며, 4학년에 이르러서야 거짓말이 수용되는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함을 시사한다. 또, 2학년에서는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간에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4학년에 이르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의의 거짓말이 가진 기능을 잘 인식하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서 이처럼 연령차가 뚜렷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해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손은경, 2002; 이근옥, 2001; Bussey, 1999; Peterson et al., 1983)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연령차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판단을 묻기 이전에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도덕적 판단 질문에 앞서 진술

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판단에서 더 나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를 탐문하였다. 아동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개념을 인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인지 과정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및 긍정적 정서 반응은 아동의 또래 인기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인기도가 아동이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 또는 긍정적 정서의 정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부정적 정서 반응은 2학년과 4학년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강하게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가장 강했고,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간에는 부정적 정서 반응에 차이가 없었던 Bussey(1999)의 연구 결과, 그리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 선미정(2005)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이다. 연령차를 살펴보면,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는 연령차가 없었으나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2학년 아동들이 4학년 아동들보다 더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4학년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2학년 아동들과 같은 수준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나 유희적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2학년 아동들보다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며, 특히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긍정적 정서 반응에서는 2학년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반사회적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

짓말보다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더 강한 정서를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4학년은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높게 나타난 Bussey(1999)의 연구 결과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선미정(2005)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연령간 차이는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만 나타났는데 2학년이 4학년보다 강한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고,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두 연령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두 연령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는 어린 시기부터 양육의 실체가 잘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거나 아동이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학년에서 선의의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유형간에 긍정적 정서 반응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때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죄책감은 덜 하지만, 더 좋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학년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유발하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학년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이 가장 나쁜 감정을 유발하고 그 다음으로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점

차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반응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에 수반되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Bandura(1986)에 따르면 아동들은 타인의 반응에 비추어 다양한 도덕적 정서들을 학습하는데, 이러한 정서들은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는데 기초가 된다. 즉,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판단이 인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이 거짓말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개념에 기초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인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거짓말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보다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성숙된 사회인지 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인식 능력이 또래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또래 인기도가 높은 아동들과 낮은 아동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고무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집단에서의 적극적으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에게 옳고 그름과 관련된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본 연구는 또래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서 거짓말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가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또래 인기도를 인기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김신옥(1987). 아동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리·이숙희(2005). 인기있는 아동은 마음읽기를 잘 하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8.

김희주(1988). 어린이의 거짓말 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미정(2005). 의사소통 맥락에 따른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은경(2002).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종란·조증열(2000). 초등학생에서 친사회적 도덕 추론, 교실행동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53-64.

신유립(2005). 아동의 틀린 믿음 및 정서이해 능력과 인기도 및 친구관계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43(8), 13-23.

양진희·최기영(1996). 아동의 또래간의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259-273.

이근옥(2001).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아동들의 판단 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her, S. R., & Renshaw, P. D. (1983).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for social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9, 353-374.

Badenes, L. V., Estevan, R. A. C., & Bacete, F. J. G. (2000). Theory of mind and peer rejection. *Social Development*, 9, 271-283.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ear, G. G., & Rys, G. S. (1994).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33-638.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Capage, L., & Watson, A. C.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613-628.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Happé, F. G. E.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 867-876.
- Lalonde, C. E., & Chandler, M. L. (1995). False belief understanding goes to school: On the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coming early or later to a first theory of mind. *Cognition and Emotion, 9*, 167-185.
- Lee, K. (2000). Lying as doing deceptive things with words: A speech act theoretical perspective. In J. W. Astington (Ed.), *Minds in the making: Essays in honor of David R. Olson*(pp.177-196). Oxford: Blackwell.
-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 Perner, J. (1997). Children's competency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a witness: Truth, lies, and moral t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S21-S35.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Walper, S., & Valtin, R. (1992). Children's understanding of white lies. In R. J. Watts, S. Ide, & K. Ehrlich (Eds.), *Politeness in language*(pp.231-251).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8년 10월 31일 투고, 2009년 1월 5일 수정
2009년 1월 16일 채택